

겨울의 밤은 도시를 얇게 감싸는 유리컵 같다. 소리가 둔하고 빛이 고요하게 번지며, 사람의 발자국이 하루의 끝을 정리하듯 또렷하게 남는다. 외로운밤에 방 안 공기는 더 무겁게 느껴지고, 스마트폰의 불빛은 오히려 마음을 더 좁게 만든다. 이럴 때 문을 열고 겨울밤으로 나가 한 걸음씩 옮겨 보자. 줄어든 소음과 차가운 공기, 적당한 어둠은 생각의 가장자리를 다듬는다. 길 위에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숨을 잘 쉬고 있는지, 내 발이 얼마만큼 땅을 믿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된다.

몇 해 전, 첫눈이 내린 날 밤 10시의 골목에서 나는 30분쯤 걸었다. 발끝에 눈이 달라붙는 소리와 가로등 아래 떠다니는 입김, 공원 가장자리의 민들레씨처럼 흩어지는 사람의 발자취.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추위보다 몸에 깃든 차분함이 먼저 느껴졌다. 외로운밤이 꼭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모양이 달라져 있었다. 선명한 윤곽을 얻은 외로움은 다루기 쉬워진다.

겨울 밤이 주는 이점

겨울밤 산책은 계절과 시간의 조합이 만든 밀도 높은 활동이다. 차가운 공기는 호흡을 분명하게 해 주고, 낮보다 적은 시각 자극 덕분에 몸의 리듬이 자연스레 안쪽으로 모인다. 온도는 집중력을 돕는다. 낮은 기온은 초반에 각성을 유도하고, 걷기 리듬이 잡히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 심박과 긴장이 조금씩 내려간다. 실제로 20분에서 40분 사이의 완만한 보행은 불안 수준과 반추적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다. 수치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체감상 30분 내외가 가장 효율이 좋다. 그 정도면 몸은 따뜻해지고, 마음은 놓인다.

겨울밤의 빛도 큰 역할을 한다. 차가운 LED 가로등은 물웅덩이에 반사돼 약간의 반짝임을 만들고, 창문 사이로 새는 노란빛은 보폭을 안정시킨다. 낮에는 의미 없이 지나치던 표지판과 도로 페인트가 밤에는 길잡이가 된다. 이 단순한 시각 정보는 불필요한 판단을 줄여서, 머릿속 에너지를 비워 준다.

무엇부터 준비할까: 옷과 장비, 그리고 작은 습관

겨울밤에 나가는 일은 준비가 절반이다. 내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 목과 손, 발을 확실히 보호하는 것. 상체는 땀에 젖어도 마를 시간을 받을 수 있지만, 말단은 한 번 식으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겹쳐 입기는 여전히 가장 안전한 방식이다. 안쪽은 수분을 빨리 내보내는 합성 섬유나 메리노 울, 중간층에는 보온을 담당할 플리스나 얇은 패딩, 바깥층에는 바람을 막는 쉘. 면 티셔츠는 피하는 편이 낫다. 땀에 젖으면 금세 식고, 집에 돌아오는 길을 불편하게 만든다. 바지는 기모 타이츠 위에 바람 차단 바지를 겹치면 영하 5도 안팎에서도 충분하다. 양말은 얇은 라이너와 두툼한 울 양말 조합이 물집도 줄이고 보온도 유지한다.

신발은 미끄럼이 관건이다. 설질이 좋은 날은 러닝화도 버틸 수 있지만, 얇은 빙판이 있는 밤길은 밀창 패턴이 굵은 트레일화나 겨울 부츠가 낫다. 시내 인도에 블랙 아이스가 생기는 날을 몇 번 겪고 나면, 간단한 체인 타입 아이젠 하나쯤은 가방에 넣어 다니게 된다. 필요할 때 채우면 보폭이 단단해지고 어깨의 긴장도 가라앉는다.

조명은 손전등보다 헤드램프가 효율적이다. 손을 자유롭게 두면 자연스레 팔 스윙이 살아난다. 150에서 300루멘이면 인도, 공원 산책로를 걸기에 충분하다. 뒤쪽엔 작은 점멸등을 달아 두면 자전거와 킥보드 운전자에게 존재를 확실히 알릴 수 있다. 반사 밴드 하나를 발목에 감으면 움직임이 더 도드라져 안전하다. 도시에서조차 밤의 시야는 착시를 만든다. 보이리라 생각했던 것을 못 볼 수 있고, 못 보일 거라 생각한 것을 갑자기 보게 된다. 대비를 과하게 만드는 쪽이 낫다.

휴대전화 배터리는 추위에서 급격히 떨어진다. 영하 5도 전후에서 1시간 정도면 잔량이 20에서 40퍼센트까지 줄기도 한다. 혹한 예보가 있다면 작은 보조 배터리를 챙기자. 위치 공유 기능을 켜두고, 비상연락 단축키를 손에 익혀 두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

목에는 넥 게이터가 효율적이다. 스카프보다 들뜨는 공간이 적어 호흡기가 따뜻해진다. 천천히 깊은 호흡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만한 도우미가 없다. 장갑은 얇은 라이너와 바람막이 장갑을 겹치면 땀이 차도 조절이 쉽다. 주머

니에 손난로 하나 넣어 두면 기분마저 바뀐다. 주전자형 보온병에 따뜻한 차 200에서 300밀리리터만 담아도 귀가 길이 든든해진다.

겨울 밤 산책 전 체크리스트

- 기온, 체감온도, 강수 형태 확인. 빙결 예보 시 루트 단순화.
- 상하의 겹쳐 입기와 방풍층, 목과 손, 발 보온 상태 점검.
- 헤드램프와 후방 점멸등, 반사 밴드 준비. 배터리 잔량 확인.
- 휴대전화 위치공유, 비상연락 단축키, 소량의 현금 또는 교통카드.
- 미끄럼 대비 신발 또는 간이 아이젠, 미니 보온병 혹은 손난로.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리듬과 강도

겨울밤 산책의 적정 속도는 숨이 편하고, 생각이 정리되는 정도다. 숫자로 말하자면 시속 3에서 5킬로미터 사이, 분당 100에서 120보 보폭이 기준이 된다. 말문이 트이되 길게 대화를 이어가면 약간 호흡이 차는 정도. 이 리듬은 몸을 과열시키지 않으면서도 내부 엔진을 작동시킨다.

시간은 20분을 최소로, 45분을 상한선으로 삼아 보자. 그 사이 구간에서 몸과 마음의 기울기를 매만질 수 있다. 15분 이하는 준비와 정리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고, 60분을 넘기면 땀 식음과 피로가 뒤늦게 문제를 만든다. 초반 5에서 8분은 발목과 엉덩이 관절이 충분히 풀리도록 보폭을 짧게 가져가고, 중반 10에서 25분은 **외로운밤** 생각을 수습하는 시간으로 삼는다. 마지막 5분은 보폭을 다시 줄이며 숨을 고른다. 의식적으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법을 쓰면 추위 속에서도 기도 자극이 덜하다.

감각을 여는 법

겨울밤 산책은 감각의 재배치다. 걷다 보면 소리가 먼저 또렷해진다. 새벽 눈 위에서 들리는 바삭거림, 다리 아래로 스치는 차의 바람, 가로수 끝에서 떨어지는 작은 눈덩이. 시야는 가까운 곳부터 깊어진다. 발밑 빛의 경계, 내 그림자 옆으로 지나가는 자전거의 실루엣. 냄새도 역할을 한다. 장작 타는 냄새, 김 서린 빵집의 달큰함, 강변으로부터 올라오는 금속성 냄새. 그날의 고요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한 가지씩 이름 붙여 보라. 이름을 붙이면 불확실성이 줄고, 마음은 고요해진다.

막막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을 때는 세 가지에만 주의를 둔다. 발의 접지, 팔의 스윙, 그리고 시선의 높이. 발뒤꿈치에서 엄지까지의 압력 이동을 느끼고, 팔꿈치가 옆구리를 스치듯 앞뒤로 흐르도록 내버려 둔다. 시선은 앞 10미터 지점에 두면 어깨가 내려가고 목이 길어진다. 체온이 오르고 생각에 힘이 붙기 시작하면, 외로운밤의 걸이 달라진다. 같은 외로움이지만 몸을 누르던 덩어리에서, 곁에 머무는 존재로 바뀐다. 견딜 수 있게 된다.

음악과 침묵 사이

음악을 들으며 걸을지, 침묵을 선택할지는 취향과 상황의 문제다. 나는 집을 나설 때 늘 두 가지 선택지를 챙긴다. 한쪽 귀만 꽂는 무선 이어버드와, 아무것도 없는 주머니. 음악은 리듬을 준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보폭을 또렷하게 하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지역 뉴스는 도시의 박동을 알려 준다. 다만 볼륨은 낮게, 주변 소리를 덮지 않게 유지한다. 장비에 따라 투명 모드를 켜두면 자전거나 차량 접근 소리를 놓치지 않는다.

침묵은 잡음을 떼어 낸다. 가끔은 아무것도 듣지 않는 편이 낫다. 겨울밤의 공기는 소리를 덜어내서, 걷는 행위의 속도만 남긴다. 마음이 흩어지는 날에는 음악이 도움이 되고, 마음이 벅차는 날에는 침묵이 더 낫다. 왕도는 없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주변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 선에서 조절하면 된다.

경로를 고르는 기준

경로 선택은 안전과 지속성의 문제다. 겨울밤에는 잘 아는 동네에서도 구조가 바뀐다. 낮에 젖었던 길이 밤에는 단단하게 얼어 있고, 평소 켜져 있던 가로등이 꺼져 있기도 하다. 그래서 길의 질감을 미리 떠올려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나는 보통 1에서 2킬로미터짜리 짧은 루프를 정한다. 도중에 포기해도 손해가 없고, 마음이 편하면 한 바퀴를 더 돈다. 루프의 한쪽에는 따뜻한 빛이 새는 편의점이나 경비실 같은 안전 지점을 두면 긴장이 풀린다.

경사와 곡선도 고려한다. 내리막은 밤에 감속이 어렵다. 얼음이 얇게 깔린 내리막은 특히 위험하니 우회한다. 강변이나 하천변 산책로는 겨울에 매력이 크지만 바람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예보가 있으면 강변 구간은 짧게, 주택가 골목을 길게 잡는다. 눈이 온 다음 날은 도로변 보도블록 사이의 얼음이 녹지 않는다. 마트 앞 출입구, 버스 정류장 주변은 용융제가 뿌려져 상대적으로 낫다.

나만의 겨울 루트를 만드는 간단한 설계

- 집 앞에서 10분 거리 내의 밝은 지점 둘을 정하고, 그 사이를 연결해 루프를 만든다.
- 코스 중간에 실내 대기 가능한 장소를 하나 포함한다. 편의점, 24시간 카페, 경비실 등.
- 내리막과 다리 아래, 물이 고이는 구간을 지도와 기억으로 표시해 우회 대안을 마련한다.
- 첫 시도는 20분에 끝나도록 총 거리를 1.2에서 1.8킬로미터로 설정한다.
- 마음에 들면 루프를 확장한다. 같은 구조에 300미터씩 더해 30에서 45분 구간으로 늘린다.

날씨를 읽는 요령

겨울에는 눈, 바람, 빙결이 그림을 그린다. 맑고 차가운 밤은 별 대신 가로등 밑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보여 준다. 이때는 기온은 낮아도 노면이 예측 가능하다. 반대로 영상에서 영하로 넘어가는 경계의 밤은 위험하다. 낮 동안 녹은 눈이 저녁 바람에 얼면서, 잔잔한 유리막을 깔아 둔다. 이럴 때는 보폭을 절반으로 줄이고, 발 전체로 터치하듯 디딘다.

바람은 체감온도의 절반 이상을 좌우한다. 시속 15킬로미터의 바람만으로도 체감온도는 3에서 5도 낮아진다. 영하 5도, 바람이 센 밤이라면 영하 10도에 맞먹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페이스를 끌어올려 과열하는 전략보다는, 바람을 등지는 방향의 루프를 택하고 방풍층을 강화하는 쪽이 더 안전하다. 비와 눈이 섞이는 진눈깨비 예보가 있으면 산책을 미루거나, 아파트 단지 내부, 지하 연결 통로 같은 대체 경로로 옮긴다. 동결 우박, 이른바 싸라기눈이 내리는 날은 노면 접지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도로 변보다는 흙길, 잔디, 고무 포장 구간이 낫다.

건강과 컨디션을 고려하는 방법

호흡기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넥 게이터를 높이 올려 입과 코를 덮자. 마시는 공기를 2에서 5도 정도만 덥혀도 자극이 줄어든다. 천식 흡입기를 쓰는 사람은 입구 가까운 주머니에 놓아 둔다. 갑자기 손이 굳어지면 뚜껑 여는 데 애를 먹는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경우라면 초반에 무리하지 않는다. 몸이 데워지는 데 보통 8에서 10분이 걸린다. 그 전에는 갑자기 속도를 올리지 말고, 보폭을 짧게 유지한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발 관리가 중요하다. 양말의 주름과 젖음이 물집과 상처를 만든다. 귀가 후에는 발을 씻고 완전히 말린 뒤, 발가락 사이까지 보습제를 바르자. 어르신들은 균형감각 유지가 관건이다. 스틱 하나만 쥐어도 보행 안정성이 크게 달라진다. 야간 시력은 나이가 들수록 적응 시간이 길어진다. 현관을 나설 때 바로 어두운 길로 들어서지 말고, 환한 구간을 2, 3분 걸어 눈을 적응시킨다.



저체온증은 과장된 걱정처럼 들리지만, 겨울밤에는 의외로 빨리 온다. 초반에는 오한과 떨림, 이후에는 말수와 판단력이 줄고, 손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징후가 오면 되돌아갈 준비를 한다. 반대로 과열도 문제다. 속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내면 귀가 후 급격히 냉각된다. 땀이 난다 싶으면 지퍼를 조금 열고, 장갑을 잠시 벗어 열을 버린다. 균형 잡기가 요령이다.

혼자 걷기와 함께 걷기

외로운밤에 굳이 누구와 걷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그 감각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솔로 산책은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출발, 예상 경로, 귀가 시간을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알려 두자. 위치 공유 기능은 생각보다 큰 안도감을 준다. 반대로 누군가와 걷는다면 호흡을 서로 맞출 수 있을 만큼의 속도가 중요하다. 대화가 산책의 목적을 삼키지 않게, 몇 분간은 침묵으로 걸어 보기를 제안한다. 반려견과 함께 걸을 때는 빙판에서 끈을 짧게 잡고, 리드 줄이 갑자기 당겨질 때의 중심 이동을 연습해 둔다.

도시와 자연, 서로 다른 밤의 표정

도시의 겨울밤은 빛과 표식이 풍부하다. 교차로의 보행신호 주기가 리듬을 만들고, CCTV와 상점 불빛은 심리적 안정감이 된다. 다만 키포드와 자전거 통행이 잦은 구간은 이어폰을 빼고, 횡단보도에서 좌우뿐 아니라 대각선도 살핀다. 공원은 폐장 시간이 정해져 있기도 하니, 입구 안내판을 확인하자.

숲길과 하천변은 다른 세계다. 불빛이 적은 대신, 하늘이 더 가깝고 소리가 더 선명하다. 반사 테이프가 붙은 표식만으로 진행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럴수록 헤드램프 각도와 보폭의 리듬이 중요하다. 비슷한 속도로 걸어온 발자국을 추적하는 습관이 생기는데, 때로는 그 발자국이 산책로를 벗어나기도 한다. 자신의 루프를 믿고 표식을 확인하며 걷는 편이 안전하다.

실제 코스 예시: 도시의 2.4킬로미터 루프

서울의 한 동네를 예로 들어 보자. 출발점은 아파트 단지 정문. 오른쪽으로 300미터 가면 편의점이 하나 있고, 그 맞은편으로 가로수가 뺨뺨한 소공원이 있다. 공원을 시계 방향으로 반 바퀴만 돌고, 골목으로 빠져 초등학교 담벼락을 따라간다. 담벼락 구간은 가로등 간격이 좁아 그림자가 짧다. 이 직선 400미터를 지나면 큰길로 합류한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 인도 폭이 넓어지는 구간에서 보폭을 조금 늘리고, 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 어깨를 툭툭 풀어 준다. 카페가 점등된 상가 구간을 지나면 다시 단지 후문으로 들어온다.



전체 길이는 약 2.4킬로미터. 시속 4킬로미터로 걸으면 36분 남짓. 중간에 편의점과 병원이 있어 갑작스런 추위나 불편에도 대응하기 쉽다. 바람이 강한 날에는 공원 대신 상가 블록을 한 칸 더 돌면 된다. 초등학교 담장을 따라가는 구간은 낮에 물이 고이면 밤에 얼어붙는 경우가 있으니 첫눈 온 다음 날은 특히 주의한다.

더 짧은 시골길의 루틴

시골의 밤은 다르다. 가로등 사이사이 어둠이 깊고, 개 짖는 소리와 논이 정적이 번갈아 온다. 이런 곳에서는 왕복형 코스가 낫다. 집에서 마을회관까지 700미터, 회관 앞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다리를 건너 우회전해 집 근처 골목으로 돌아온다. 총 1.6킬로미터. 바람이 센 날이면 회관 마당에서 2분만 움직임을 이어가고 바로 돌아온다. 방향을 바꾸면 체감온도가 달라진다. 하천변은 물안개가 낄 때 미끄럽다. 다리를 건너기 전, 발로 노면을 살짝 긁어 상태를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자.

외로운밤을 다루는 방식으로서의 걷기

겨울밤 산책은 외로움을 없애는 요술이 아니다. 다만 외로움의 위치를 바꾼다. 방 안에서 나를 꼭 붙잡던 감정이, 거리에서 내 옆을 함께 걷는 감각으로 바뀐다. 그 차이는 작지 않다. 걸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한 주제로만 천천히 따라가 본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있었던 대화 중 마음에 남는 한 문장, 아니면 어린 시절 겨울 장면 하나. 한 가지 주제에 최소 다섯 분을 주면, 생각은 갈피를 잡는다.

목표를 미세하게 쪼개는 것도 좋다. 집에서 코너까지, 코너에서 공원 입구까지, 입구에서 벤치까지. 세 구간만 완주하자는 마음가짐은 중도 포기를 줄인다. 반대로 기분이 좋아져서 더 걷고 싶을 때도 있다. 이때는 한 바퀴만 더, 라고 정하자. 충동적으로 두세 바퀴를 더 돌다 보면, 땀 식음과 피로가 내일의 나를 괴롭힌다. 외로운밤에 우리가 찾는 건 과시가 아니라 균형이다.

돌아와서 하는 일: 정리 루틴

현관에 들어오면 30초만 더 서서, 목과 손, 발부터 정리하자. 넥 게이터를 먼저 벗어 먼지와 습기를 털고, 장갑을 난방기 옆이 아닌 통풍이 되는 곳에 말린다. 신발은 깔창을 꺼내 세워 두면 훨씬 빨리 마른다. 몸은 뜨거운 샤워보다 미지근한 물로 5분 정도, 체온을 천천히 올리는 편이 낫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혈관을 확 확장시켜 나중에 급격한 피로감을 부른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종아리와 엉덩이, 허리 옆 근막을 가볍게 눌러 준다. 3줄 일기를 권한다. 오늘 본 것 하나, 들은 소리 하나, 그리고 마음에 남는 감정 하나. 길 위에서 만난 구체가 다음날의 나를 붙들어 준다.

취침 30분 전까지는 밝은 화면을 피하자. 산책으로 정돈된 리듬을 다시 흘트리지 않는 마무리의 기술이다. 창문을 2분만 열어 밤공기를 한 번 더 들여보면, 방안 공기의 맛이 달라진다.

비용과 장비, 현명한 선택

겨울 장비는 가격 폭이 넓다. 상하의 방풍 세트, 헤드램프, 반사 장비, 아이젠까지 새것으로 맞추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그러나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기본은 보온과 방풍, 접지.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의 고가 제품이 아니어도, 달리기용 윈드 재킷과 일상용 경등급 패딩 조합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중고장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상태 좋은 겨울 장비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할 수 있다. 헤드램프는 밝기보다 배터리 효율과 착용감이 더 중요하다. 알칼라인 배터리는 추위에 취약하니, 가능하면 충전식 리튬 이온을 쓰자. 체감상 영하 5도에서 1시간 산책 시, 알칼라인은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반면, 리튬 이온은 20에서 30퍼센트로 버틴다.

립밤과 보습제 같은 사소한 아이템도 큰 차이를 만든다. 불과 코 주변에 바람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고를 얇게 바르자. SPF는 밤에는 필요 없지만, 바람에 의한 건조 자극을 줄이면 산책 후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덜하다.

자주 만나는 문제와 대처

가장 흔한 문제는 미끄러짐과 과열, 그리고 귀가 길의 급격한 냉각이다. 보폭을 짧게 하고, 발 전체로 디디며, 손가락을 가볍게 쥐었다 펴는 동작으로 상체 긴장을 풀어 주자. 과열은 지퍼 관리로, 냉각은 귀가 직전 3분간의 감속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가끔은 예상치 못한 공사 구간이나 소등 구간을 만나기도 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 코스를 기억하는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표지판과 건물 외관을 기준으로 이동해 보자. 표식은 시각이 달라져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심리적으로는 시작의 문턱이 제일 높다. 퇴근 후 소파의 중력이 특히 강하게 느껴지는 날, 나는 현관에 이미 반쯤 완성된 산책 가방을 둔다. 장갑과 넥 게이터, 작은 보온병과 반사 밴드가 들어 있는 가방. 초코바 반쪽을 넣어 둘 때도 있다. 뭔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은 움직임의 첫 1분을 줄여 준다.

결국, 길 위에서 만나는 것

겨울밤 산책은 외로운밤을 없애는 대신, 외로움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친다. 밤의 공기는 명확하고, 발자국 소리는 정직하다. 이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루는 작고 정교한 기술을 익힌다. 길 위에서 호흡을 맞추고, 몸의 온도를 관리하고, 생각 한 줄을 붙잡아 본다. 그렇게 걷고 돌아오면, 침대 위의 공백도 조금은 따뜻해진다. 다음 날의 얼굴이 약간 덜 굳어 있다. 이 변화는 하루에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주일에 두세 번, 20에서 45분의 산책을 반복하면 길은 금세 몸의 일부가 된다.

눈 오는 밤, 가로등 아래에서 번지는 흰빛, 입김 사이로 스며드는 빵 굽는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마지막 지하철의 금속성 울림. 이런 것들이 외로운밤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를 붙든다. 오늘도 문을 열고 나가 보자. 너무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다. 집 앞 코너까지, 코너에서 공원 입구까지. 그만큼이면 충분하다. 걷는 동안 우리는 알고, 돌아와서 비로소 이해한다. 겨울밤이 왜 좋았는지, 그리고 왜 다시 걸어야 하는지.